

다채널 시대 TV방송 정치평론가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송승호 /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동규 /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다채널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환경 아래서 '시사토크쇼'를 매개로 전례 없이 활성화되고 있는 TV방송의 정치평론을 주도하는 평론가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무엇이고 평론가 데뷔 이전의 경력 상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성별로는 남성평론가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40~50대가 주축임을 보여주었다. 출신지역별로는 영남과 수도권 중심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의 38.1%를 차지하였다. 출신대학의 경우에는 서울소재 대학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그중에서도 서울대·연대·고대 등 소위 소수 명문대학 출신이 과반수이상을 점유하였다. 한편 대학은 국내에서 공부했지만 대학원은 외국대학에서 마친 소위 '유학파' 평론가들이 상당히 분포하였다. 전공영역을 살펴본 결과 학부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법학전공이 가장 많았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정치학 전공이 가장 많았다. 직업의 경우 현직의 변호사, 교수, 정당인, 신문사재직 언론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치평론을 직업으로 갖는 즉 전업 평론가는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평론가들의 데뷔이전 핵심경력을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현존 평론가그룹은 '언론경력 중심의 평론가', '학계경력 중심의 평론가', '정계경력 중심의 평론가', '법조경력 중심의 평론가'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별로 등장배경이나 활동영역 등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뉴미디어, 정치평론, TV방송 정치평론가, 시사토크쇼, 인구사회학적 변인, 핵심경력

I. 문제제기

최근 다채널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환경 아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 장르 중 하나가 바로 '시사토크쇼'이며 이를 매개로 한 TV방송의 정치평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국내 정치담론 형성과 확산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듯 TV방송의 정치평론이 활성화된 데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내걸고 2011년 개국한 종합편성(이후 종편) 채널의 역할이 결정적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소위 '종편 저널리즘'이나 '종편 타임 데'라는 새로운 표현이 나올 정도로 종편에서는 뉴스가 더 이상 전통적인 뉴스 전달로 끝나지 않고 주요 이슈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론이 뒤따르는 게 일상화된

* songsungho11@naver.com 주저자

** kdg810@konkuk.ac.kr 교신저자

포맷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썰전>이나 <강적들>, <외부자들>, <판도라>처럼 시사, 교양, 오락의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들까지 등장, 인기를 끌면서 '시사토크쇼'는 종편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프로그램 형식이자 상품으로 평가받는다(이영주, 2017).

최근 들어 더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종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방송을 물론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발주자인 종편의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이 시청률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종편따라 하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BSITV <KBS 뉴스토크>,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SBS <이슈 인사이드>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듯 이들 프로그램이 사회적, 정치적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프로그램에 등장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말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출연자 즉, 정치평론가들의 역할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누가 평론가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공정한지, 나아가 평론가로서의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는지 등이 끊임없이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의주장과 역할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들은 누구인지 즉, 어떤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갖춘 사람들인지를 밝히는 것도 이런 시비의 근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초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기존의 논의가 실증적,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채 대부분 저널리즘적 접근이나 인상 비평적 수준의 논의에 머물고 있어 더욱 그렇다.

본 연구는 '시사토크쇼'를 매개로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TV방송의 정치평론을 주도하는 평론가들

은 과연 누구인가를 실증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론가로 등장해 활동하는 지 나아가 이들의 경력 상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지를 핵심경력을 토대로 유형화하고 그 세부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기존논의

1. 정치평론과 방송

1) 정치평론의 기능과 역할

정치평론은 대중을 향한 설득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행위이자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일반적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고 정치평론가들이 현실정치에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위가 아닌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평론이 갖는 기능을 김대영은 비판적 기능과 매개적 기능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004). 여기서 비판적 기능이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타인이 이를 공적영역에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창출해 내는 과정에 비롯된 기능이다. 한편 매개적 기능이란 정치 평론이 정치인과 일반국민들을 매개해 관성적인 중론을 넘어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평론이 현실정치와 정치의 제도적 측면을 잘 이해하게함으로써 공적영역

의 이슈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평론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유리된 비판과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정치적 행위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의 두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정치적 정직성(integrity)이다(심재웅·고성국·서상민, 2012, 27). 정치적 행위로서 정치 평론은 다양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론가 자신의 견해와 친화적인 당파나 정파의 입장에서 평론이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정치인의 말과 정치평론가의 말은 다르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선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중을 대상화한다. 그러나 정치평론가들은 일반시민들과의 공감과 공명을 중요시 한다. 그러려면 대중이 귀담아 듣고 읽을 수 있는 정치적 정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정치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과 평가, 그리고 정치적 행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올바른 선택과 정치적 실천을 하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평론가의 정직한 실천은 비율의 감각(sense of proportion)을 통한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하는 외로운 투쟁이다(이동수, 2010). 정치 평론가가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과 같이 행동한다면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이때 정치 평론은 정치 선전에 다름이 아니게 된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당파적 이익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정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고 이를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평론가는 본인의 분석들과 현실정치 사이에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야만 한다. 자신의 현실정치 분석과 진단,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현실 정치의 문제를 타개할 만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대안을 대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¹⁾

두 번째 조건은 통합(integration)이다(심재웅·고성국·서상민, 2012, 29). 정치평론은 현실정치의 이슈를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현실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실천적 역할도 담당한다. 정치인들이 갈등을 통해 권력획득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평론가는 이러한 통합을 매개로한 현실정치의 비판과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대중의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반화하려면 평론의 대중성 확보가 중요하다. 즉, 평론가의 정직성을 기초로 한 대중성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통합이 진정한 공론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이다.

김대영도 정치평론이 정치현안에 대한 단순한 평론을 넘어 국민과 함께 공동성찰의 계기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관성을 거부하는 비판정신, 차이를 드러내는 공정성, 논쟁을 통한 사회통합, 성숙한 국민을 위한 공론화 그리고 역사에서 찾는 공동체정신 등과 같은 저널리즘 정신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한다(2013).

1) 김만흠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평론을 객관적인 정치 평론이라고 보았다(2013, 123).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정치현장의 주체로부터는 떨어져있고, 그만큼 직접적인 당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책임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평론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런 객관적인 위치의 평론의 세계에서 또 자신의 주관적인 당파성이 존재한다.

2) 방송과 정치평론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정치평론은 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평론이다. 평론가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보다 대중화된 언어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신념을 전달하려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을 상대하는 대중매체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한다.

매체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정치평론은 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미디어 와 글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심재웅·고성국·서상민,2012; 김만흠,2013). 즉, 신문을 중심으로 한 칼럼과 논평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매개로한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매체를 활용한 정치평론의 지평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방송의 경우 기존의 지상파방송 중심에서 뉴미디어인 케이블방송과 IPTV 등의 등장으로 인해 채널이 다양화되고 콘텐츠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치뉴스와 평론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었다. 특히 정부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방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및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중편채널이 개국 초기와는 달리 점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보도와 시사토크쇼 영역을 집중 편성하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방송을 통한 정치평론은 외형상의 활성화와 함께 내용과 형식상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평론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방송의 정치평론은 어떠했을까? 종래의 방송의 정치평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도구

적, 의례적으로 방송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는 평가다(심재웅·고성국·서상민,2012). 그래서 서인지 뉴스보도 이상의 수준을 확보한 방송의 정치평론은 많지 않았다. KBS의 '심야토론'이나 MBC의 '100분토론'처럼 일주일에 한번정도 있는 지상파방송의 시사토론이 그나마 방송에서의 정치 평론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김만흠, 2013).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편방송사들은 개국 초기 대형 드라마나 바라이어티 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사들과 경쟁하려다 후발주자로서 지상파 방송사 모델을 따라 하기에는 콘텐츠 부족과 투자와 채용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기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사토크쇼'프로그램을 전략상품화 했다(안성희, 2015).²⁾ 이러한 TV방송과 정치평론의 만남은 신문이나 평론지 중심의 전통적인 정치평론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정치평론이 너무 현학적이고 대중과 유리돼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방송의 정치평론은 매체로서의 방송의 특성에 따라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자극적이거나 가벼운 정보와 친화력이 있는 TV매체의 경우 무거운 정치적 소재를 TV식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편 스타일의 정치평론은 생활현실을 반영한 대중 친화적 평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곧 김만흠(2013)의 표현처럼 TV가 '나 홀로살기'의 도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창구가 됨을 의미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대체로 정치평론의 예능화와 정치화의 두 가지로 모아진다. 먼저

2) 이들 프로그램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를 초대해 대담을 나누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뉴스의 형식과 정통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박지영·김예란·손병우 등(2014)은 이들 프로그램들을 혼성장르인 '시사토크쇼'로 명명하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구어적이며 내밀한 담화양식으로 논의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사토론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종편에서 이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 되었다(금희조·조재호, 2014). 특히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선거기간이 되면 중편채널은 아예 정치뉴스와 정치평론 전문채널로 특화되었다.

정치 및 시사 정보의 오락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이지만 국내 방송의 정치평론을 주도하는 시사토크쇼는 엄숙주의와 객관성, 사실전달 중심의 전통적인 시사토론프로그램과 달리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사건과 감정을 격의 없는 대화 속에서 엄숙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 담화 양식의 도입이 특징이다(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해외프로그램들이 내용적 측면에서 연성이슈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풍자적 성격의 예능토크쇼 형식에 치중한 반면 한국의 경우엔 심각한 정치·사사 이슈를 오락적으로 포장하여 진행하는 독특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정은교·금희조, 2014). 그러다보니 시사대담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아예 ‘시사예능토크쇼’라고 불릴 정도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예능적, 오락적 요소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종편 4사의 대표적인 시사토크쇼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다 유명 예능인이며³⁾ 종편의 시사토크쇼는 ‘한낮의 TV연예’라는 모니터 평이 나올 만큼 프로그램 아이템 4꼭지 중 하나는 연예 이슈라는 분석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김현수, 2016.7.7). 이런 예능화는 Baum(2003)의 주장처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아 정치 시사지식의 학습과 정치 참여의사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예능화 정도가 심해지면 예능화된 정치평론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소재로 한 예능이 되어 정치적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김만흠, 2013).

다른 한편 방송의 정치평론은 대체로 진영 간 대립구도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진영을 벗어난 구성은 자칫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기 쉽고, 흥미 있는 토론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사토크쇼처럼

감정표출이 허용되는 평론은 평론의 정치화를 더욱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한다. 절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반감이나 적대적 언어를 매개로 한 평론가들의 진영 간 대립이 강화될수록 프로그램의 내적 긴장성은 높아져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게 된다. 때로는 대결구도에서의 역할이나 공과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권에 영입되거나 배제되기도 한다(이영주, 2016). 이럴 경우 정치평론이 공동체를 위한 공론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기진영의 세력화의 수단이 되고 진영 간 적대적 대립이라는 현실정치구조가 방송에서 재현, 내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김만흠, 2013).

2. 선행 연구

국내에서 방송과 정치평론을 연계시킨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있다고 하더라도 학문적 접근과 분석 보다는 저널리즘 수준과 모니터 차원에서 기존의 방송 정치비평이 갖는 문제점이나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평론가들의 특성이나 평론 내용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치평론학회가 2011년 출간한 <미디어와 공론정치: 정치평론은 무엇인가?>와 심재용·고성국·서상민 등이 2012년도에 수행한 ‘방송저널리즘과 정치평론’연구는 방송 정치평론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자는 정치평론의 철학적 기초와 개념 그리고 동서양의 정치평론의 역사와 사례를 집대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한국정치평론학회, 2011). 반면 후자는 이를 기반으로 기존 방송의 정치 평론 논

3) 2018.1월 현재 채널A의 <외부자들>은 남희석, TV조선<강적들>은 김성경, MBN <판도라>는 배철수, JTBC<썰전>은 김구라가 진행을 맡고 있다.

의에서 현실 파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방송사들의 편성표를 분석해 매체별 형태별 방송정치평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심재웅·고성국·서상민, 2012). 그 결과 2012년 당시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방송사들의 편성에서 정치평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며 지상파 TV3사의 경우 정치평론코너가 거의 없는 데 반해 2011년 개국한 종편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정형 코너를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3사 라디오방송에 고정형 정치평론코너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정치평론 전문가들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정치평론가 인력 풀의 부족, 중복출연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 그리고 종편의 과도한 편성으로 인한 질적 하락 등을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론에 대한 적절한 보상, 평론 인력양성 기관설립, 수준 높으면서도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정치평론, 그리고 새로운 포맷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최근에는 종편등장 이후 활성화된 소위 종편 저널리즘과 시사토크쇼 중심의 정치평론에 대한 분석이 여러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정치학자 김만흠(2013)은 종편중심의 방송정치평론의 특징을 기존의 정치평론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연되는 진영대립의 정치평론, 연성화된 방송을 매개로 한 정치평론의 예능화, 인터넷 댓글의 방송화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질적수준의 문제와 평론의 예능화가 갖는 양면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문화연구자들인 박지영·김예란·손병우(2014)는 종편 '시사토크쇼'의 담화 양식에 대한 대화분석과 민속지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그 양식이 친밀한 면대면 대화의 맥락을 구축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을 강도 높게 표현하게해주는 '사담'의 양식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담화가 특정한 이념적 시각에서 구성된 현실상을 객관화, 자연화하고 특정집단을 부정적인 감정의 대상으로 타자화하여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작동시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담의 담화양식이 한국 사회의 팽배한 진영논리를 강화시키면서 정치적 담론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논의와 분석은 이기형(2014)의 종편의 과잉된 정파저널리즘과 '홍분하는'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에도 등장한다.

나아가 이들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정치적 효과의 실증적 분석에 관심이 있었던 정은교·금희조(2014)는 전국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청자들의 정치관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뉴스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이들 프로그램 시청정도가 높으며, 예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토크쇼 이용 즉 시청이 정치관련 지식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다. 금희조·조재호(2015)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사토크쇼' 시청이 시민들의 정치적 신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시사토크쇼' 시청을 많이 할수록 정치적 신뢰의 수준이 높음을 발견했다. 아울러 시청량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치신뢰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짐도 알아냈다. 종편의 시사토크프로그램들이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프로그램의 시청이 진보적 시청자들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킨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역설적 효과인 셈이다.

다른 한편 종편에 등장하는 정치평론가 집단의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들도 있다. 강찬호(2013)는 종편에 주로 등장하는 정치평론가들을 정치적 경험인

사, 언론인 출신, 여론조사기관이나 연구소 출신, 교수그룹, 기타 평론가들로 구분하고 이들의 정치평론의 문제점을 논조의 획일성과 과도한 당파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자의적 판단으로 지적하였다. 즉, 보수성향의 평론가들은 ‘조·중·동’등 특정 보수신문의 논조와 비슷한 평론을 하며 진보성향의 평론가들도 한겨레나 경향 등과 유사한 평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사하는 언어도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톤이 거칠며 인신공격에 가깝다는 것이다(강찬호, 2013). 하주용도 비슷하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단과 편파적 해석, 자극적 감정표현이 종편 정치평론가들의 특징이라고 보았다(하주용, 2014).

이영주(2016)는 ‘시사토크쇼’에 등장하는 출연자 즉 평론가들을 ‘정치매개 엘리트’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이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과 감정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독특한 규정과 서술적 발화들을 통해 특정대상들을 형상화하는 텔레비전정치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 통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확보하면서 정치집단과 정치적 교환 혹은 거래관계를 형성함을 강조하였다.

언론시민단체나 다른 언론사에게도 종편 시사프로그램 출연자 문제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13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민언련’의 모니터 보고서들이 대표적이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15.3.12; 2017.10.19). 이들 모니터보고서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통점을 요약하면, 특정 정치성향의 ‘편파적인 평론’, ‘정치 뒷담화’ 수준의 질 낮은 평론, 소수 패널의 ‘겹치기 출연’ 그리고 백화점식 토론을 의미하는 ‘만물상 평론’ 등으로 모아진다. 이는 곧 평론의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에 대한 비평과 문제제기에 다름 아니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내 방송정치평론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부족한데 주목하고 ‘시사토크쇼’를 매개로 방송영역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TV방송의 정치평론을 주도하는 평론가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두 개의 연구문제와 각 문제별 하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은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여기서는 TV에 등장하는 평론가들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출신지, 직업(현직 기준)의 분포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문제1-1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1-2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1-3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학력 및 전공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1-4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직업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는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관련 경력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다. 여기서는 평론가개인의 여러 경력 중 핵심경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평론가그룹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공통된 특성을 알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2-1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문제2-2 TV방송 정치평론가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가?

IV.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TV방송 전반을 다루기 위해 중편은 물론 보도전문채널, 지상파TV방송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방송(KBS, MBC, SBS)과 중편(TV조선, 채널A, JTBC, MBN) 그리고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에서 방송된 시사토크쇼에 출연한 평론가 전부가 분석대상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 프로그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프로그램 (2016.12.1.-2016.12.31.)

방송사	프로그램명
KBS	〈생방송 일요토론〉, 〈4시 뉴스집중〉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100분 토론〉
SBS	〈SBS 뉴스스토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선데이 라이브〉, 〈김광일의 신통방통〉, 〈정치옥타곤〉
채널A	〈토요 랭킹쇼〉, 〈선데이 모닝쇼〉, 〈일요 매거진〉,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박상규의 이슈 속으로〉, 〈쾌도난마〉, 〈이슈 투데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사건반장〉, 〈JTBC 밤샘토론〉, 〈썰전〉
MBN	〈시사스페셜〉, 〈뉴스파이터〉, 〈뉴스 BIG5〉, 〈뉴스&이슈〉, 〈뉴스와이드〉
YTN	〈뉴스21〉,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이슈오늘〉, 〈뉴스타워〉, 〈뉴스&이슈〉, 〈호준석의 뉴스인〉, 〈뉴스Q〉, 〈뉴스 통〉, 〈뉴스 브리핑〉
연합뉴스	〈뉴스 포커스〉, 〈뉴스 현장〉, 〈뉴스 리뷰〉, 〈뉴스 위치〉, 〈뉴스 투나잇〉

이들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평론가들을 전수 조사하여 총 135명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2. 자료수집

분석 대상 평론가 135명 중 공개적인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126명을 대상으로 개인 프로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일차적으로는 <네이버>와 <다음>의 인명검색과 <구글>검색을 이용해 개인별 프로필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내용은 <조인스닷컴>, <조선닷컴>, <연합뉴스>의 유료 검색사이트를 통해 보완하였다. 아울러 <페이스 북>, <트위터>를 이용하여 기존 내용의 보충과 함께 정확성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순서를 밟았다.

3. 분석 유목

위의 자료 원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아래<표 2>의 분석 유목에 따라 구분하였다.

<표 2> 자료의 분석 유목

분석유목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① 성별	① 남 ② 여
	② 연령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⑥ 80대
	③ 출신지역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남 ⑥ 전북 ⑦ 대전충남 ⑧ 충북 ⑨ 강원 ⑩ 제주 ⑪ 해외
	④ 학력	① 학사: 출신학교 () 전공 () ② 석사: 출신학교 () 전공 () ③ 박사: 출신학교 () 전공 ()
	⑤ 직업 (현직)	① 언론계 ② 법조계 ③ 학계 ④ 정계 ⑤ 평론계 ⑥ 기타
2. 경력 상의 특성	① 언론계	① 언론사별 () () () () : 총 재직 년 수 ()
	② 법조계	① 검사 () ② 판사 () ③ 변호사 () : 총 재직 년 수 ()
	③ 학계	① 대학 () ② 연구소 () ③ 사회조사 () : 총 재직 년 수 ()
	④ 정계	① 소속기관 및 정당 () () () : 총 재직 년 수 ()
	⑥ 기타	() () () ()

3 방송 출연 특성	출연횟수	① 지상파	① KBS ② MBC ③ SBS
		② 종합편성채널	① TV조선 ② 채널A ③ JTBC ④ MBN
		③ 보도전문채널	① YTN ② 연합뉴스

위의 분석유목 중 인구사회학적 분류기준은 강상현의 연구(1996), 임영호·김은미·박소라의 연구(2004), 경력 분류 기준은 김세은의 연구(2017)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4. 분석대상자의 프로그램 출연 분포

분석대상 126명의 프로그램 총 출연회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최소 1회에서부터 최대 97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의 특징을 구체화하기 위해 10회를 급간으로 나누어 분결과 <표 3>과 같이 10회 이하의 출연이 전체의 43.7%, 11회에서 20회 사이의 출연이 21.4%, 21회에서 30회 출연이 12.7%로 전체 평론가 126명 중 98명으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중복 내지 과다출연이라 할 수 있는 41회 이상 출연자는 21명으로 전체의 16.7%, 51회 이상은 8명 6.4%로 좁혀져 분석대상 프로그램 수에 비해 패널로서의 출연이 소수 평론가들에게로 집중됨을 보여준다.

<표 3> 프로그램 출연 회수의 분포

횟수	1~10	11~20	21~30	31~40	41~50
(%)	55 (43.65%)	27 (21.43%)	16 (12.70%)	7 (5.56%)	13 (10.32%)

횟수	51~60	61~70	71~80	81~90	91~100	계
(%)	5 (3.97%)	0 (0.00%)	2 (1.59%)	0 (0.00%)	1 (0.79%)	126 (100%)

V. 연구결과

1. TV방송 정치평론가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연령별 분포

먼저 분석대상 평론가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이 103명(81.8%)로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23명(18.3%)에 불과했다. 한국 정치와 언론계의 남성중심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 성별 분포

	남	여	전체
(%)	103(81.75%)	23(18.25%)	126(100%)

한편 이들 평론가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50대가 71명으로 전체의 56.35%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각 각각 22명(17.46%)로 뒤를 이었다. 즉, 50대를 주축으로 40대에서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연령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를 다시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평론가의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그다음이 60대로 20.4%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평론가가 11명으로 전체의 47.8%, 50대가 9명(39.1%)을 차지해 평론가의 주축 연령대가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5〉 성별·연령별 분포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남	3 (2.9%)	11 (10.68%)	62 (60.19%)	21 (20.39%)	4 (3.88%)	2 (1.94%)	103 (100%)
여	2 (8.70%)	11 (47.83%)	9 (39.13%)	1 (4.35%)	0 (0.00%)	0 (0.00%)	23 (100%)
계	5 (3.97%)	22 (17.46%)	71 (56.35%)	22 (17.46%)	4 (3.17%)	2 (1.59%)	126 (100%)

2) 출신지역의 분포

분석대상 평론가 126명의 출신지역을 구분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 23.8%, 부산·울산·경남 18.3%, 대구·경북 17.5%, 광주·전남 13.4%의 순이었다. 이를 다시 권역별로 묶어 살펴보면 영남출신(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도권(서울과 경기·인천) 27%, 호남(광주·전남과 전북) 16.7%, 충청(대·전충남과 충북) 12.7%, 강원 5.6%, 제주 2.4%의 순이었다. 이는 상대적이지만 평론가 출신의 지역적 분포가 영남과 수도권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출신 지역의 분포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수 (%)	30 (23.81%)	4 (3.17%)	23 (18.25%)	22 (17.46%)	17 (13.49%)	4 (3.17%)
	34 (26.98%)		45 (35.71%)		21 (16.66%)	

지 역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해외	계
수 (%)	10 (7.94%)	6 (4.76%)	7 (5.56%)	1 (0.79%)	2 (1.59%)	26 (100%)
	16 (12.70%)		7 (5.56%)	1 (0.79%)	2 (1.59%)	26 (100%)

3) 학력의 분포

(1) 학력정도

TV정치평론가들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대상 128명중 대학 중퇴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졸업이 35명으로 전체의 27.8%, 대학원 졸업이 전체의 70.6%(석사 41명, 박사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학력이라 할 수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의 38.1%를 차지할 정도로 평론가집단이 고학력 집단임을 보여주었다.

〈표 7〉 학력수준별 분포

학위	학사	석사	박사	대학교 중퇴	계
수(%)	35(27.78%)	41(32.54%)	48(38.10%)	2(1.59%)	126(100%)

(2)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분포

이를 다시 출신 대학이나 대학원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론가 126명의 출신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85.7%로 압도적이며 그중에서도 소위 'SKY'대학으로 분류되는 서울대·연대·고대 출신이 전체의 53.2%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서울 소재 여타대학이 32.5%, 지방대출신이 9.5%를 차지하였다.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89명중 서울 소재대학 대학원 출신이 70.3%(출신SKY대학출신이 40.1%, 서울소재여타대학출신이 30.3%)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해외대학 대학원 출신이 22.5%를 차지하였다.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48명

의 출신대학을 구분해보면 서울 소재 대학의 비율이 62.5%로 낮아지면서 ‘SKY’대학을 제외한 서울소재 여타대학 대학원 출신 박사의 비율이 43.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해외 대학출신이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출신대학의 분포

	인원수(%)		
	학사	석사	박사
서울대 연·고대	67(53.17%)	36(40.45%)	9(18.75%)
서울 소재 여타대학	41(32.54%)	27(30.34%)	21(43.75%)
지방대	12(9.52%)	5(5.62%)	2(4.17%)
해외대	2(1.59%)	20(22.47%)	16(33.33%)
기타	4(3.17%)	1(1.12%)	0(0.00%)
계	126(100%)	89(100%)	48(100%)

이와 같은 변화는 대학원 학위를 한 평론가들 상당수가 학부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등에서 공부하였지만 대학원 특히 박사의 경우에는 서울의 다른 대학이나 해외에서 공부를 한 경우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외국에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평론가들의 비중이 석사의 경우 22.5% 박사의 경우 33.3%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학부는 국내에서 공부했지만 대학원은 외국대학에서 마친 소위 ‘유학파’ 평론가들이 상당수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출신 대학 및 대학원 분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참조).

〈표 9〉 상위 대학 및 대학원

	순 위
학사	① 서울대학교(41명) ② 고려대학교(18명) ③ 연세대학교(8명) ④ 성균관대학교(8명) ⑤ 경희대학교(7명)
석사	① 해외 대학원(20명) ② 서울대학교 대학원(17명) ③ 고려대학교 대학원(12명) ④ 연세대학교 대학원(7명) 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5명)
박사	① 해외 대학원(16명) ② 성균관대학교 대학원(7명) ③ 서울대학교 대학원(5명) ④ 고려대학교 대학원(4명) ⑤ 경희대학교 대학원(3명)

학부의 경우에는 상위 5개 대학은 서울대(41명), 고려대(18명) 연세대와 성균관대 8명 경희대 7명의 순이었다. 반면 석사의 경우에는 해외 대학 즉 유학파(20명) 그 다음 서울대(17명), 고려대(12명), 연세대(7명), 성균관대(5명)의 순이었고 박사학위의 경우 해외파(16명) 성균관대(7명), 서울대 (5명), 고대 (4명), 경희대 (3명)의 순으로 나타나 학부와는 상위권 대학의 순서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4) 전공의 분포

정치평론가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중 하나가 전문성이다. 특정 영역에 대한 개인의 전문성 여부를 가름하는 요소 중 하나가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전공이 무엇인냐이다. 분석대상 평론가들의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의 전공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0〉 전공의 분포

	학사	석사	박사
정치/정치외교	27(21.43%)	24(26.97%)	21(43.75%)
언론	7(5.56%)	12(13.48%)	5(10.42%)
법학	32(25.40%)	19(21.35%)	7(14.58%)
기타사회계열	12(9.52%)	18(20.22%)	8(16.67%)
상경계열	18(14.29%)	8(8.99%)	4(8.33%)
인문계열	8(6.35%)	2(2.25%)	0(0.00%)
어문계열	11(8.73%)	3(3.37%)	1(2.08%)
교육/사범계열	3(2.38%)	1(1.12%)	1(2.08%)
이공계열	5(3.97%)	2(2.25%)	1(2.08%)
미상	3(2.38%)	0(0.00%)	0(0.00%)
계	126(100%)	89(100%)	48(100%)

먼저 대학에서의 전공의 분포를 살펴보면 특히하게 법학전공 출신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치/정치외교 전공이 21.4%, 상경계열

전공이 14.3%, 기타 사회계열 9.5%, 어문계열 8.7%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석사의 경우 정치/정치외교 전공출신이 27%, 법학전공이 21.4%, 기타사회계열 전공이 20.2% 언론 전공이 13.5%, 상경계열출신이 9.0%의 순이었고 박사의 경우에는 정치/정치외교전공이 43.8%, 기타사회계열 전공이 16.6%, 법학전공이 14.6%, 언론전공이 10.4% 상경계열이 8.3%이 순이었다. 즉,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 특히 박사의 경우 정치/외교전공의 비중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론가들의 전공이 정치/정치외교 전공으로 제한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점에서 평론가로서의 등장에 정치/정치외교 전공을 했느냐가 큰 결정요인은 아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5) 현재 직업의 분포

평론가 본인이 현직이라고 밝히거나 TV화면에 노출된 직업명을 중심으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호사 24명(19.1%), 교수 23명(18.3%), 정당인 22명(17.5%), 신문사재직 언론인 17명(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직업의 분포(현직 기준)

직업		수(%)	
언론계	신문사	17(13.49%)	18(14.29%)
	방송사	1(0.79%)	
법조계	검사	0(0.00%)	24(19.05%)
	판사	0(0.00%)	
	변호사	24(19.05%)	

학계	교수	23(18.25%)	28(22.22%)
	연구인	5(3.97%)	
정계	정당인	22(17.46%)	39(30.95%)
	국회의원	11(8.73%)	
	대변인(정당)	4(3.17%)	
	대변인(청와대)	1(0.79%)	
	비서관(국회)	1(0.79%)	
평론계	정치평론가	6(4.76%)	12(9.52%)
	문화 및 시사평론가	6(4.76%)	
기타	기타	5(3.97%)	5(3.97%)
계		126(100%)	126(100%)

이를 다시 직업군별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정치 관련 직업군이 39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학계가 28명(22.2%), 법조계가 24명(19.1%), 언론계가 18명(14.3%), 평론가가 12명(9.5%), 기타 5명(약4%)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TV에 출연하는 정치평론가 중 평론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은 전체의 10% 수준에 머물고, 대부분이 정치인이나 언론인,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가지면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이는 아직까지 정치평론가가 정규 직업으로서 정착되기보다는 원래 직업에 덧붙여 수행하는 부가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TV방송 정치평론가의 유형화

1) '핵심 경력'을 토대로 한 평론가 유형구분

평론가 개인별로 살아온 이력이나 경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상호배제적인 수준으로 구분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평론가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일분야 경력으로 일관되기보다는 정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내지는 일반기업이나 연구소 경력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역별 경력의 비중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견주어보면 핵심이 되는 경력이 무엇인지를 추출해내는 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개인별 경력내용을 기반으로 예비조사해본 결과, 이들 평론가들 경력이 대체로 언론계, 정치계, 학계, 법조계와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개인별 관련 소속과 직책을 나열하고, 경력별 재직기간을 합산해 그중 가장 재직 년 수가 긴 경력을 그 평론가의 ‘핵심 경력’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126명의 평론가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언론경력 중심의 평론가’, ‘학계경력 중심의 평론가’, ‘정계경력 중심의 평론가’, ‘법조경력 중심의 평론가’ 등의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 유형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언론경력 중심 평론가가 전체의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학계경력 중심 형과 정계경력 중심 형이 23% 수준, 법조경력 중심 형 평론가가 1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구분이 힘든 경우가 5.6%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유형별 분포

	언론경력 중심형	법조경력 중심형	학술경력 중심형	정치경력 중심형	기타	계
명(%)	35(27.78%)	25(19.84%)	30(23.81%)	29(23.02%)	7(5.56%)	126(100%)

2) 평론가 유형별 특성

(1) 언론경력위주 평론가 유형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대상 126명의 평론가 중 언론계 경력 위주의 평론가가 35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언론계 경력상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 언론사 경력을 매체별로 구분해보면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신문사 경력이 핵심이었고 방송사 출신 경력의 평론가는 2명에 불과했다. 한편 직책상으로는 신문사 논설위원 출신이 11명(31.3%), 신문사 국장/본부장출신 7명(20%), 평 기자 출신 6명(17.1%), 편집장 출신 4명(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계 경력의 핵심은 신문사에서의 기자부터 간부급까지의 언론 활동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3> 언론경력의 분포

	인원수(%)	
	직책	인원수(%)
신문	기자	6(17.14%)
	차장	2(5.71%)
	부장	2(5.71%)
	국장/본부장	7(20.00%)
	편집인(장)	4(11.43%)
	논설위원	11(31.43%)
	사장/이사	1(2.86%)
방송	부장	1(2.86%)
	부국장	1(2.86%)
계		35(100%)
		35(100%)

이러한 특징은 이 유형의 평론가들 중 방송출연 횟수가 가장 많은 즉, 평론활동이 활발한 평론가 사례들에서도 잘 나타났다. 아래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출연한 A 평론가(97회)의 경우

신문사 정치부 기자에서 정치부 차장, 논설위원을 거쳐 월간지 편집장에 이르는 경력을 갖고 있다. B평론가(60회)의 경우는 신문사 기자에서 시작해 방송사로 갔다 바로 신문사로 다시 이직하여 정당팀장, 논설위원, 상무 직까지 수행한 경력의 소유자다. 평론가 C(56회)의 경우 방송기자에서 출발했지만 바로 신문사로 옮겨 사회부 정치부 부장까지 역임했으며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 언론경력 중심형의 대표 사례

사례 (출연횟수)	주요경력
A(97회)	00신문 정치부 기자, 00일보 정치부 기자, 00일보 정치부 사회부 기자, 00일보 정치부 차장대우, 00일보 편집국 정치부 차장, 00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00일보 편집국 차장, 월간00 편집장
B(60회)	00신문 사회부, 정치부 기자, 00방송 정치부 차장, 정경부장, 00방송 보도국 사회부 부장, 00신문 편집국 문화부 차장, 00신문 정치부 차장, 정당팀장, 00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00신문 편집국 정당팀 팀장 부장대우, 000,000,000,TV,라디오 정치평론가, 00신문 편집국 정치부 부장, 00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부장, 00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00신문 편집국 부국장, 00신문 출판국 기획위원, 00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000시청자 위원, 00신문 수석논설위원, 00여대 겸임교수, 00신문 000연구소 소장 국장, 00신문 출판본부 본부장 국장, 00신문 상무,
C(56회)	00방송 사회부, 00일보 사회부, 00일보 정치부, 00일보 체육부 기자, 00일보 편집국 기자, 00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 00일보 편집국 사회부 차장대우, 00일보 정치부 부장, 00일보 국제부 부장, 00클럽 편집위원,

이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이들 평론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부장이나 논설위원까지 지내거나 현직으로 활동 중이어서 정치관련 취재경험이 많고 직책상 현실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2) 정치경력위주 평론가 유형의 특징

분석대상 126명 중 29명이 정치경력 위주의 평론가로 구분되었다. 이들 정계 경력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회의원(재선이상의 현직의원도 포함)경력의 평론가가 16명(55.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당 대변인 출신 9명(31%), 기타 정당인이 3명, 자자체 의원 경력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정치경력 위주의 분포

	국회의원 (전현직)	정당대변인	정당인	지자체 의원	계
명(%)	16(55.17%)	9(31.03%)	3(10.34%)	1(3.45%)	29(100%)

그러나 출연 빈도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3위까지의 평론가가 다 정당인(대변인 포함)출신 평론가들이다. 아래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76회 출연으로 가장 많이 출연한 D평론가의 경우 정당 연구소에서 출발하여 의원비서관, 시의회의원, 정당 부대변인, 지방선거출마 등의 특징이며, 유사한 출연횟수의 E평론가(73회)의 경우는 의원보좌관, 비서관, 정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치 관련연구소 수석위원 등이 주요 경력이다. 평론가 F(52회)의 경우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정당의 기획팀장, 구의회 의원, 정당 정책자문위원, 대학 객원교수 등이 주요 경력이다.

〈표 16〉 정치경력 중심형의 대표 사례

사례 (출연횟수)	주요경력
D(76회)	000연구소 연구원, 000의원 비서관, 000연구소 선임연구원, 00당 00지구당 사무국장, 00당, 00지구당 정책실장, 00시의회 의원, 00 선임연구원, 00당 부대변인, 제00회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00당, 00시장)

E(73회)	국회의원 000 보좌관, 00당 정책위원회 선임전문위원, 000 의원 보좌관, 00당 대표비서실 부실장, 제00대 대통령 선거 00당 선거대책위원회, 000연구소 수석연구위원, 000센터 수석연구위원
F(52회)	00대 제 00대 총학생회장, 제00대 총선 00당 00 기획팀장, 제00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00당, 서울 00구의회 의원), 서울 00구의회 구의원(00당), 00지방의원협의회 사무총장, 000연구원 정책자문위원, 00대학교 00학과 객원교수

이들 경력 상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국회의원 비서나 보좌관 출신내지는 정당 활동을 한 정당인으로 선거관련 유경험자라는 점 그리고 정치관련 연구기관 소속으로 정치와 선거관련 연구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3) 학계경력위주의 평론가 유형의 특징

학계 경력 위주 평론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30명의 평론가 중 교수직을 내건 평론가가 19명으로 전체의 6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치관련 연구소 연구원이나 여론조사 및 사회조사 전문가들의 비중은 36.7% 수준이다(〈표 17 참조〉).

교수 내에서도 전임의 비중이 비전임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임교수의 경우 대부분이 정치학전공 교수이고, 비전임의 경우에는 현실정치 참여경력이나 정치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자료써 겸임이나 초빙, 객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평론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학계경력의 분포

(%)			
교수	전임	12(40.00%)	19(63.33%)
	비전임 (겸임, 초빙, 객원, 석좌교수)	7(23.33%)	
연구원	정당 및 정치관련 연구	10(33.33%)	11(36.67%)
	사회조사연구	1(3.33%)	
계		30(100%)	30(100%)

이 유형의 특징을 출연횟수가 많은 평론가 3인의 경력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출연한 G 평론가(45회)의 경우 정치관련 연구소 연구원 경력에 대학의 강사와 초빙교수 경력이 더해지는 게 특징적이며 H 평론가(21회)의 경우는 대학의 정치학 강사에서 교수 그리고 정당의 선거예비후보 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게 특징이다. 평론가 I(16회)의 경우 연구소 연구원에서 출발하여 대학 강의와 연구 교수 그리고 정치학회 활동 등이 특징이며 현재는 정치관련 아카데미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 경력으로 살펴본 이들 평론가들의 공통점은 정치관련 연구 활동내지는 대학에서의 강의경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의 전임교수나 초빙내지 연구교수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초빙이나 연구교수의 경우 강의와 연구부담이 큰 전임 교수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정치평론이나 여타의 정치 활동이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표 18〉 학계경력 중심형의 대표 사례

사례 (출연회수)	주요경력
G(45회)	000연구소 연구원, 00대 강사, 000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00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H(21회)	00대 정치학 강사, 00대 정치학 강사, 00대 정치학 강사, 00대 정치학 강사, 00대 정치학 강사, 00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0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00당, 00 00), 00당 정책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현 00대 0000연구소 소장, 현 00대학교 00대학원 000과 교수
I(16회)	000연구소 선임연구원, 00대, 강사, 00대 강사, 00정치학회 상임이사, 000 실행위원, 현 000 자문위원, 00대 사회과학연구원 특별연구원, 000연합 정책위원장, 미국 00대학 정치학과 방문교수, 00대 아태지역연구원 연구교수, 000위원회 인권위원, 현 00방송 객원해설위원, 현 000연구소 이사장, 현 00정치아카데미 원장, 현 000위원회 위원

(4) 법조경력위주의 평론가유형의 특징

앞서 현직 기준 직업 분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조출신 평론가의 특징은 변호사 위주라는 점인데 이는 법조출신 평론가 25명의 경력 상의 특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원래부터 변호사출신 평론가가 18명(72%), 검사출신 평론가가 6명(24%), 판사출신 평론가는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경력의 평론가가 법조경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표 19 참조〉).

〈표 19〉 법조경력의 분포

	검사	판사	변호사	계
명(%)	6(24.00%)	1(4.00%)	18(72.00%)	25(100%)

이러한 특징은 이 유형 대표적 평론가의 경력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래 〈표 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조계 평론가 중 가장 많이 출연한 J평론가(54회)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바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K평론가(48회)의 경우는 검사생활을 하다 변호사로 전환한 데 이어 정당의 국회의원선거 예비선거와 후보등록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평론가 L(45회)호사 경력이 주이지만 K 평론가처럼 정당의 국회의원 예비선거와 후보등록의 경험을 가졌다. 따라서 K와 L의 경우 변호사이면서도 현실정치 참여경험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표 20〉 법조경력 중심형의 대표 사례

사례	주요 경력
J(54회)	제00회 사법시험 합격, 제00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00 변호사, 현 법무법인 00 변호사
K(48회)	제0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00기 수료, 00지검 검사, 00지검 00지청 검사, 00지검 검사, 00지검 00지청 검사, 000법률사무소 변호사, 제0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00당, 00 00), 제0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자(00당, 00 00), 현 법무법인 00 변호사
L(45회)	제0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00기 수료, 000법률사무소 변호사, 제00대 대통령직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 자문위원, 제0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자 (00당, 00 00), 00당 00시당 법률지원단장, 현 법무법인 00 변호사, 제0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00당, 00 00)

VI. 결과에 대한 논의

1 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다채널을 특징으로 하는 뉴미디어 방송환경 아래서 '시사토크쇼'를 매개로 방송영역 전반에 걸쳐 전례 없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TV방송의 정치평론을 주도하는 평론가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평론가 등장 이전의 경력 상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평론가들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출신지별, 직업별(현직 기준) 특성을 파악하고 후자 즉, 경력 분석에서는 핵심경력을 중심으로 평론가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공통된 특징을 추출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대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지상파방송(KBS, MBC, SBS)과 종편 (TV조선, 채널A, JTBC, MBN) 그리고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에서 방송된 시사토크쇼에 출연한 평론가 126명이다. 자료 수집은 다음과 네이버, 구글 등 여러 공개된 인물정보 자료 원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일련의 분석유목에 따라 구분되었다. 결과처리에는 양적인 빈도분석과 함께 질적인 사례분석이 동원되었다.

여기서 얻어진 핵심적인 연구결과와 그 의미를 연구문제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구분에서는 남성평론가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50대 평론가들이 주축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다시 교차해 분석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60대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많아 평론가의 주축 연령대가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출신지역별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순이었지만 이를 다시권역별로 묶어 살펴보면 영남출신(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평론가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도권, 호남(광주·전남과 전북), 충청(대·전충남과 충북), 강원 제주의 순으로 나타나 평론가 출신의 지역적 분포가 영남과 수도권 중심에로의 쏠림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 한국정치의 강력한 지역주의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쏠림 현상이 연고주의 평론 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의 38.1%를 차지할 정도로 평론가의 학력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출신 대학 및 대학원별로 나누어 보면 대학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그중에서도 서울대·연대·고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이 과반수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학력수준이 석사와 박사로 높아지면 그 비중이 줄어들고 외국 대학원 출신 평론가들의 비율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부는 국내에서 공부했지만 대학원은 외국대학에서 마친 소위 '유학파' 평론가들이 상당수 분포함을 의미한다.

넷째, 평론가로서의 전문성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 중 하나인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전공영역을 살펴본 결과 학부의 경우에는 법학전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정치/정치외교전공, 상경계열 전공의 순이었다. 그러나 석사나 박사로 올라갈수록 정치/정치외교 전공의 비율이 증가해 학부보다는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평론가들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공영역이 다양하게 분포해 정치학을 전공했느냐가 중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TV방송의 정치평론가로서 등장에 큰 결정요인은 아님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평론가들의 현재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정치관련 직업군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평론가의 순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현직 변호사, 교수, 정당인, 신문사재직 언론인이 평론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치나 시사, 문화 등 어떤 유형이든지 평론가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은 분석대상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정치평론이 정규 직업으로서 정착되기보다는 원래 직업에 덧붙여 수행하는 부가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평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정치평론 인력양성 기관설립, 수준 높으면서도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정치평론, 그리고 새로운 포맷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심재웅·고성국·서상민, 2012)이나, 평론가로서의 자질이나 요건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예: 정치평론가 협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강찬호, 2013)은 적극적 고려의 대상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TV방송 정치평론가들의 경력 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개인별 경력 중 핵심 경력을 토대로 분석대상 평론가들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언론경력 중심의 평론가, 학계경력 중심의 평론가, 정계경력 중심의, 평론가, 법조경력 중심의 평론가 등의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별로 나름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언론경력 중심 형 평론가의 경우 대부분이 신문사 기자출신이며 직책상으로는 논설위원출신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신문사 국장/본부장출신, 기자출신, 편집장 출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유형의 대표적 평론가들 대상 사례분석 결과 모두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부장이나 논설위원까지 지내거나 현직으로 활동 중이어서 정치유관 경험이 많고 현실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위치 즉 자원관리와 동원에 유리한 사람들이었다.

둘째, 정치경력 중심 형 평론가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 정당대변인이나 정당인 경력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출연횟수로 볼 때 이 유형을 대표하는 평론가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비서나 보좌관 출신내지는 정당 활동을 한 정당인으로 선거관련 유경험자라는 점 그리고 정치관련 연구기관 소속으로 정치와 선거관련 연구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학계 경력 중심 형 평론가의 경우 정치전공 교수나 정치관련 연구경력 소유자들이 대부분이며 전임교수보다는 선거출마나 정치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비전임 교수(초빙, 겸임, 객원교수 등) 경력의 평론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현실정치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학계경력을 통해 분석해낼 수 있어 신뢰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강의 부담이 큰 전임교수들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어 출연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법조경력 중심 형 평론가의 경우 변호사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검사출신이 그다음이며 판사출신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평론가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법조경력위주 평론가의 경우 변호사 경력이 핵심이며 여기에 선거와 같은 현실정치 경험이 있는 경우 평론활동이 더욱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욕구 외에 사회엘리트로서의 법조인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채널시대 TV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해 활동하는 정치평론가들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방송 특히 TV방송의 정치평론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관심 제고와 일차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 자료 수집과 분석에 치중하려는 연구

목적상 연구결과로 나타난 평론가들의 특성들이 그들의 주의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논의에서는 이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적 논의의 보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이 단기간의 횡단적 분석에 그쳐 결과와 논의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분석범위 및 기간의 확대나 시기별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심층적인 클러스터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여러 여건상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일은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 동원된 자료 역시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극복의 대상이다.

참고문헌

- 강상현(1996). 한국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3집, 399-420.
- 강찬호(2013). 방송 정치평론의 문제점과 해법: 종편 시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가을호, 249-258.
- 금희조·조재호(2014).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 시청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시청의 주 효과 및 정치 성향과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9권 3호, 5-35.
- 김대영(2004). 공론화를 위한 정치평론의 두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117-141.
- 김대영(2013). 정치평론에 필요한 저널리즘 정신. *관훈저널*, 가을호, 207-224.
- 김만홍(2013). 진영대립의 정치와 방송의 정치평론. 정치와 평론, 13, 113-128.
- 김세은(2017). 한국 '폴리널리스트'의 특성과 변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권 3호, 7-54.
- 김현수(2016.07.07.). 종편의 시사토크쇼는 '한낮의 TV연예',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View/at_pg.aspx?CNTN_CD=A0002224285&CMPT_CD=P0001
- 민주언론시민연합(2015.3.12). 종편시사토크쇼는 한마디로 막말쇼, 카더라쇼이다. *종편모니터보고서* http://www.ccdm.or.kr/xe/index.php?mid=watch&category=6293&page=11&document_srl=17508.
- 민주언론시민연합(2017.10.19). 언론인과 변호사로 패널 바뀌었지만 막말·편파 여전한 종편. *종편시사 모니터보고서* http://www.ccdm.or.kr/xe/index.php?mid=watch&category=6293&page=2&document_srl=240548.
- 박지영·김예란·손병우(2014). 종편 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꽤도나마>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2권 2호, 5-62.
- 심재웅·고성국·서상민(2012). *방송저널리즘과 정치평론*(연구보고서 2012-05).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안성희(2015). 종편 시사대담프로그램의 여론형성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연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형(2014).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홍분하는' 시사토크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종편의 문화정치 2014 미디어콘텐츠포럼*, 1-16.
- 이동수(2010). 정치평론에서의 lexis와 logos. *정치와 평론*, 제7권, 23-34.
- 이영주(2016). 종합편성채널 저널리즘의 비판적 재조명: 시사토크쇼 정치매개 엘리트들의 텔레비전 정치. *한국언론정보학보*, 77호, 36-72.
- 임영호·김은미·박소라(2004). 한국일간지 언론인의 커리어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61-89.
- 정은교·금희조(2014). 정보인가 오락인가: 정치 예능 토크쇼의 정치적 효과.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362-390.
- 하주용(2014). 종편 '정치토크'프로그램 홍수 이대로 좋은가. *관훈저널*, 겨울호, 67-73.
- 한국정치평론학회(2011). 미디어와 공론정치: 정치평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인간사랑.
- 송호진 (2013.3.6.). 패널, 이 종편 저 종편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9078.html.
- Baum, M.A.(2003). Soft news and political knowledge: Evidence of absence or absence of evidence?. *Political Communication*, 20, 173-190.

ABSTRACT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ommentators on TV *

Song, Sung Ho

Doctoral Candidate, Dept. of Mass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

Kim, Dong Gyu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 a specific manner, who indeed are the political commentators leading TV broadcasting's political criticism, which is unprecedently invigorated throughout the broadcasting area with the mediation of 'current affairs TV shows'. The research questions are: What is the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the political commentators on TV? Which career characteristics do they have prior to their debut as commentators? According to research outcomes, first, the majority of political commentators were male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Their hometowns were concentrated in the Yeongnam region or the capital area. In addition, most of them ha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38.1% had doctoral degrees, showing a high level of education overall. As for the place of undergraduate education, universities in Seoul accounted for the vast majority; a few prestigious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comprised the vast majority. Meanwhile, commentators who had completed undergraduate studies in Korea but had gone overseas for graduate studies were also substantial in number. As for their major areas, interestingly, law majors accounted for the most in undergraduate school, followed by political science majors in graduate school. The professions of commentators were mostly current lawyers, professors, members of political parties, and journalists employed at newspaper companies. Those whose profession is political commentator accounted for only 10% of all commentators. Second, by categorizing political commentators appearing on TV based on their major work experience, four types were drawn: commentators with journalism-oriented careers, commentators with academia-oriented careers, commentators with politics-oriented careers, and commentators with legal affairs-oriented careers. Differentiated common factors were found in each category.

Keywords : political criticism, political commentators on TV, socio-demographic variables, career

* 최초투고일 2018년 4월 11일 / 심사일 2018년 4월 12일 ~ 5월 4일 /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16일